# 2009학년도 정시 논술시험

# 출제 의도와 문제 해설

## Ⅰ. 2009학년도 정시 논술시험 출제의 기본방향

고려대학교의 2009학년도 정시 논술은 2007학년도 입시 이래로 고려대학교가 시행해 오고 있는 통합논술의 형태로 출제되었다. 고려대학교 통합논술의 기본방향은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백서』에서 이미 상세히 밝혀져 있다. 이번 논술은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통합논술 시험의 특징과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 제시문들은 사회과학(정치학), 인문학(철학), 동양문헌, 문학(시), 논리적 추론 분야를 망라하고, 제시문들 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난이도도 매우 높은 편은 아니어서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들이라면 무리 없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주제 및 제시문 해설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 논술시험은 '공감'이라는 큰 주제 하에 묶일 수 있는 5개의 제시문을 활용하고 있다. '공감'은 일상적으로도 매우 친숙한 개념이다. 제시문들은 이런 친숙한 개념이 문학과 철학,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어떻게 분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제시문은 극단적 사해동포주의와 극단적 민족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약한 사해동포주의'에 관한 글이다. 둘째 제시문은 모든 집단적 구분을 폐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평등적으로 통합하는 만민공동체를 주창하는 글이다. 셋째 제시문은 도덕적 실천의 동력으로서의 사랑과 사랑의 범위를 다루고 있고, 넷째 제시문은 사랑과 이별을 통한 인간적 성숙의 과정을 그린 시이다. 다섯째 제시문은 먼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인가라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설정을 제시한다.

출제자들이 수험생들의 답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조금은 복잡한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읽고 그 논지를 파악하며 전체적으로 중요한 요점을 지적해 내는 것, 그리고 제시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논제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부합하는 내용을 주어진 분량 속에 적절하게 표현해내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각 제시문의 논지 및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가 2007년에 출간한 *National Responsibility and Glob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라는 책에서 취한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밀러 교수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순화된 '시민적 민족주의'는 구성원들 사이의 시민적 신뢰를 강화시킴으로써 복지 재정의 확보를 포함한 사회 정의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책은 자신이 주창하는 '시민적 민족주의'가 지구적 차원의 정의(Global Justice)를 구현하고자 하는 도덕적 요구와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밀러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동료 시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전체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사해동포주의자들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는 동료 시민들에 대한 책임과는 달리 전체 인류에 대해서 우리는 복지와 고용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할 책임은 없다고 본다. 둘째, 지구적 차원에서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향유해야할 권리는 보장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밀러는 이런 경우에 우리의 행위가 가져온 해악에 대해 갖는 직접적인 책임과 최소한의 조건이 결핍되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밀러는 이러한 책임이 예방적(provisional)이기보다는 처방적(remedial)이라고 부언한다. 셋째, 이전 세대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갖는 직접적인 책임은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상속된다고 주장한다. 밀러는 이전 세대의 성취를 다음 세대가 향유하듯 책임도 상속되며, 이와 같은 상속된 책임의 주체는 정치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성을 가지는 민족이어야한다고 말한다.

발췌된 부분은 공감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밀러의 세 가지 주장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맞추어 편집한 것이다. 여기에서 밀러는 전체 인류에 대한 의무가 동료 시민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한다는 견해를 강한 사해동포주의라고 규정하고, 그 대안으로 약한 사해동포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밀러는 자신이 제안하는 약한 사해동포주의는 국지적 의무와 지구적 의무 중 일방에 엄격하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사안의 비중을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 국지적 책임성과 지구적 책임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비중 모델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밀러는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옹호하지만, 동료 시민에 대한 의무와 인류에 대한 의무에 차등을 두는 것을 약한 사해동포주의라고 정리한다. 지구적 차원의 인도적 의무에 대한 도덕적 의미를 동료 시민에 대한 시민적 의무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사해동포주의, 그리고 시민적 의무가 그 어떤 내용의 지구적 정의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이 제시문을 채택한 하나의 이유였다.

**제시문 (나)**는 강유위(康有爲)의 『대동서(大同書)』에서 발췌한 것이다. 강유위(1858~1927)는 중국 청말의 학자이자 정치가로서, 동아시아는 물론 서구 각국의 학술에 대한 다양한 독서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이상세계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치적 개혁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대동서』는 중국 남방의 광주에서 유학하던 저자가 프랑스의 침략으로 인한 전란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을 고통에서 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지은 책이다. 강유위는 사람들이 처한 고통의 원인이 가정, 국가, 민족 등 차별을 낳는 집단의 존재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집단적 구분을 폐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평등적으로 통합하는 만민공동체의 형태로 세계 통일 정부 체제를 제시하였다. 남녀, 계급, 인종 등의 불평등이 전혀 없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복지를 누리며 높은 교양과 도덕의 수준에 도달한 이상적 미래상이 이 책에서 말하는 '대동세계'이다.

제시문은 강유위 본인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왜 나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근거로서 저자는 동아시아 유교의 전통적 사상인 '인(仁)'을 들었다. 그에 의하면 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 사이를 끌어당겨서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는 힘이다. 가족이나 국가 같은 집단적 구별에 제한되지 않고 이러한 공감을 확장해 가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나와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동포가 된다. 궁극적으로는 가족과 국가 등 차별을 낳는 제도 자체를 모두 없애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대동(大同)의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유위의 견해에 따르자면 공감은 확장될 수 있고, 더 크게 확장된 공감이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확장된 공감이 개인의 실천윤리를 넘어서 사회제도로 구현되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막스 셸러(Max Scheler)가 1912년에 최초로 발표하고, 1922년에 많은 보완을 거쳐 지금의 형태로 출판한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이라는 책에서 취한 것이다. 물론 이 책은 큰 틀에서는 칸트로 대표되는 이성 중심주의 윤리학에 반대한 저술이고, 동정심 및 공감에 근거한 흄, 애덤 스미스, 쇼펜하우어 등의 감정 중심 윤리학을 현상학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이지만, 제시문에서는 특히 도덕적 실천의 동력으로서의 사랑과 사랑의 범위가 주제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 사랑은 때로는 단순한 쾌락이나 충동으로, 때로는 사심 없는 박애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셸러가 이해하는 사랑은 인격을 향하는 지향적 행위이고, 이 행위를 통해 인격의 가치를 창출하고 고양하는 정신의 활동이다. 물론 여기서 인격이 굳이 이 또는 저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가치 또한 규범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사랑을 통해 경험되는 인격과 이 경험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는 사랑의 주체로서의 '나'에게 구체적인 것으로 경험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사랑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셸러만의 독특한 입장이 드러난다. 사랑은 이성의 사유 활동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사랑은 '지금-여기' 서있는 나에게 구체적인 '너,'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를 향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 사랑의 가치가 더 커지고,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보다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 가치 있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박애의 정신에 따라 가장 보편적인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셸러에게 최대한의 보편성은 최소한의 구체성일 뿐이다. 왜냐하면 보편성은 구체성의 제거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고, 따라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그 구체성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사랑이 보편적인 대상을 향하면 할수록, 이 사랑이 창출하는 가치가 점점 피상적으로, 그리고 이를 통해 경험하는 인격도 점점 더 추상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고 비극적인 사랑의 원근법이다. 이런 맥락에서 셸러는 "최대 다수에 대한 사랑은 실제로는 하나의 증오"라고, 그것은 '나'의 고향, '나'의 민족, '나'의 조국에 대한 증오라고 쓰고 있다. 물론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사랑으로서의 박애의 이념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셸러는 신이 아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후자를 전자에 접근시키기 위한 첩경이다. 바로 이것이 같은 주제를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두 제시문과 본 제시문을 비교하며 읽을 때 주목해야 할 초점이다. 제시문은 출제 의도에 맞추어 발췌, 편집되었다.

**제시문 (라)**는 김용택의 시 「사랑」의 일부이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취한 이 시는 사랑과 이별을 통한 인간적 성숙의 과정을 보여준다. 시의 화자는 연인과 이별한 후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다. 화자에게 그 시간은 연인이 '이 세상 하고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동안 연인은 화자에게 특별한 존재였지만 이별한 뒤에는 더 이상 그러한 존재로 머물지 못한다.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이던 연인이 뭇 사람들 중 하나가 되는 과정은 화자에게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 화자는 삶과 세상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실연의 아픔을 겪는 화자에게 '세상이 더 넓어져/ 세상만사가 다 보이고/ 사람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다 이뻐 보이고/ 소중하게 다가'온다. 화자는 실연의 아픔 끝에 '많이도/ 세상을 살아낸/ 어른이 된 것' 같은 자신을 돌아본다. 자신의 사랑을 개인적 차원에서 보편적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이다. 화자는 연인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을 애틋이 사랑하듯/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라는 화자의 진술은 공감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제시문 (나)와 (다)의 상충된 두 주장들을 연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와 관련하여 도덕적 판단과 실천을 요구하는 하나의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 하에서의 판단과 실천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과 '합리성'의 조건들을 정의한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나'는 한 자선단체 봉사자로부터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외투를 기부하라는 부탁을 받는다. 물론 현

실의 상황에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의 상황을 봉사자에게 물어보겠지만, 제시문에서는 그 아이의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아이의 상황에 대한 두 가지의 대안적인 가능성이 제시된다. 첫 번째 가능성의 핵심은 그 아이가 가까운 곳에서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의 핵심은 그 아이가 먼 곳에 있지만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제시문은 개인의 '선호' 개념을 사용하여 세 가지 '최소한의 도덕성'의 조건들과 세 가지 '합리성'의 조건들을 제시한다. '나'는 (1) 가까운 곳에서 시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통이 크지 않은 아이를 돕는 행위, (2) (1)의 아이를 돕지 않는 행위, (3) 먼 곳에서 시급하지는 않지만 커다란 고통을 당할 위험에 처한 아이를 돕는 행위, (4) (3)의 아이를 돕지 않는 행위에 대해 나의 선호를 갖고 있다. 이 행위들은 한 쌍씩 짝지어져 각 쌍의 두 행위들이 서로 비교될 수 있고, '나'의 선호는 각 쌍의 두 행위들에 대한 표현된다. 총 4개의 행위가 있으므로 가능한 쌍은 모두 6개이다. '최소한의 도덕성'의 조건들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쌍에 대해 '나'의 선호관계를 정의한다. '합리성'의 조건들은 '나'의 선호관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정의하는 조건들이다. '최소한의 도덕성'과 '합리성'의 조건들을 사용하면 '최소한의 도덕성' 조건들에서 정의되지 않은 행위들 간의 선호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카스파 헤어(Caspar Hare)가 2007년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에 발표한 논문("Rationality and the Distant Needy")을 참조하여 구성되었다.

## Ⅲ. 논제 해설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 논술시험은 수험생들의 학력수준에 비추어 무리가 없는 주제 및 제시문을 선택하는 데 유의하였다. 또 통합논술의 성격에 맞도록 인문학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측면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주제와 제시문들을 선택하였고, 특정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제시문도 제시되었다. 이번 논술은 수험생들의 통합적 사고능력을 측정하기에 매우 적합하게 구성되었다.

**논제 Ⅰ**은 제시문 (가)를 500자 내외로 요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약의 사전적 정의는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림이다. 따라서 답안은 제시문에 포함된 요점들을 모두 포함하는 압축적인 글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필수적이다. 이상은 요약문 작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답안 작성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요약문도 자신의 글이므로 응시자는 제시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되고, 제시문의 중심 단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글을 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제시문에 나타난 요점들을 단순히 병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요점들을 제시문 (가)의 핵심 주제 아래 포괄하는 글을 쓸 수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약한 사해동포주의가 제시하는 도덕적 기준이 요약문의 핵심을 이루고, 그 외의 여러 요점들이 이 핵심을 중심으로 얼개를 이루는 글이라면 출제진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논제 Ⅱ**는 두 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공감의 확장'을 중심으로 제시문 (나) (다) (라)를 비교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는 것이다. 답안도 이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시문 (나) (다) (라)는 공감의 면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다. 제시문 (나)에 의하면, 공감은 확장될 수 있고 확장된 공감이 좁은 범위의 공감보다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논리를 따를 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감을 이루기 위해 가족 등 특정 집단 내에서의 공감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공감이 개인의 실천 윤리를 넘어서 사회제도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바람직하고 추구해야 할 이상이지만 제시문 (다)의 관점에 의하면 공감의 범위 확대는 그 구체성의 빈곤이라는 문제를 불러온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 확장될수록 이 공감이 창출하는 가치는 점점 추상화 된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추상적으로 범위가 확대된 공감보다 좁고 친밀한 범위 내에서의 구체적인 공감에 더 큰 가치를 둔다. 한편 제시문 (라)는 제시문 (나)와 (다)의 상충된 두 주장들을 연계하는 내용을 진술한다. 제시문 (라)의 화자는 실연의 아픔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개인의 차원에서 보편의 차원으로 승화시킨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 제시문은 공감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보여준다.

이 논제는 두 번째로 공감과 도덕적 실천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답안은 (나) (다) (라) 중 하나의 관점을 취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관점을 종합하여 자신의 관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관점을 취하건 중요한 것은 공감의 거리와 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도덕적 실천의 양상에 대한 판단을 조리 있게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제 Ⅲ**은 수험생들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의도되었다. 논제 III은 '예방접종을 받으면 장티푸스를 피할 수 있는 먼 나라의 아이를 돕지 않는 행위'를 제시문 (마)에서 주어진 '최소한의 도덕성'의 조건들과 '합리성'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장티푸스의 위험에 처한 아이를 돕지 않는 행위는 제시문 (마)의 조건2에서 AD로 표기되어 있다. 반면 장티푸스의 위험에 처한 아이를 돕는 행위는 조건3에서 SD로 표기되어 있다. 제시문 (마)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제시문에 주어진 여섯 개의 조건들을 사용하면 SD와 AD 사이의 선호관계와 그에 따른 행위실행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이 논리적인 결론이 논제에서 언급된 주장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여야 하고, 논제에서 언급된 주장이 '최소

한의 도덕성'과 '합리성'의 조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논술해야 한다.

## Ⅳ. 평가기준

수험생들의 독해능력과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논술시험에서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에서는 통합적 측면을 위하여 제시문들을 함께 묶어서 제시하되, 논제를 개별화하여 구체적인 항목마다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논술의 성격상 특정한 정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논술문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답이 없다고 해서 오답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특히 유의할 경우에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신 없는 부분이라고 빼놓고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답안 전체의 평가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둘째, 논제에서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고, 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한다. 논제에서 요약을 요구하는 경우와 해설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설명이나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각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투적인 견해나 예를 드는 것보다는 주어진 제시문 및 논제의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제시문을 참고하되, 제시문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해서는 안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분량 등 글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